

시베리아 문화권 민속복식의 색채문화에 관한 연구

김 문 숙 · 김 원 주*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의복은 인간의 일상적인 필요에 따라 존재의 수단으로서 중요성을 가지며, 장식과 기능적인 디자인이 요구되는 예술의 한 부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의복의 유형은 가치관, 언어, 종교 및 다른 감정적인 면과 더불어 그 사회의 문화를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시베리아 문화권의 의복을 살펴보면 인간과 동물세계의 우주론적 연계에서 자기 부족의 생존이 달려있는 동물의 영혼을 즐겁게 해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의복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문화권의 의복에서 강조되는 샤머니즘은 오늘날 민간층의 산 종교로서 정신적 불안의 해소와 생활의 희망을 부여해 주면서 그 나름대로의 역사 의식이 흐르고 있으며, 무속을 중심으로 민간인들의 심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는 시베리아의 샤머니즘 사상과 복식의 특성을 자료와 문헌 고찰을 통하여 조사해 보고, 시베리아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자연색채 문화를 의복, 부츠, 장식, 민간신앙 등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 민속문화의 기층문화를 이루고 있는 시베리아 문화권의 색채문화를 연구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시베리아 문화권의 민속복식을 살펴본 결과 의복은 착용자에게 힘과 정체성을 불어넣고 악령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의복에 도상학적 모티프·색상·장식 등이 더해졌으며, 의복의 재료와 재단법은 우주론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의복을 통하여 주술적 믿음과 부족의 상징적 가치를 표현하고, 의복의 실질적인 기능을 외적인 면과 의복의 효율성으로 사회적·주술적·미적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물리적 환경과 기후에 따른 의복에서 전통스타일의 힘과 민족 주체성도 찾아볼 수 있다.

시베리아 샤먼복의 상징은 샤먼을 우주와 결합시키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결합시켜 다른 주민들과 구분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며, 샤먼복에 부착된 장식물들은 샤먼의 보호령으로서 상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의복이나 부츠에서는 흰색, 검은색을 기초로 황토색, 오렌지색 등의 다양한 자연색채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장식문화와 민간신앙에서 보여지는 자연색채는 인간세계와 영혼세계의 교류를 통한 주술적인 상징성을 많이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시베리아 문화권의 민속복식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색채들은 내재된 철학의식을 담고 있으며, 시베리아 자연색채 문화의 기층은 인체와 우주의 원리를 생각하는 역학의 사상을 기초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 민속문화의 태극사상과 관련되어 다른 문화적 특색에서도 그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